

제재 조치는 교회만 적용!!

교계 “핵심은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모임 제재는 과도한 탄압”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이용자 모두 벌금 부과

코로나19와 관련 그동안 정부의 교회에 대한 불편한 행태가 가시화되어 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찰, 성당, 교회 등 일부에서 감염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교회만을 지목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는 교계 기관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 7월 8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방침을 전했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 다분히 교회를 겨냥한 의도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종교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조준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성명서를 통해 규제조치 대상을 ‘교회’로 특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한교연은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했다.

최근 집단감염 사태는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총리의 현실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위협과 강제적 압박의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즉시 논평을 발표하고 “중대본의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회의 소모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그러면서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특히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발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교총은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가 문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교연 성명서
“정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 총리가 교회를 콕집어 문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도문치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압박의 수준이 아닌가.

우리는 정부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감염증의 피해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여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 7. 8.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한교총 논평〉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7월 8일에 발표한 교회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K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교육행사 자체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자칫하 관료적 발상의 편파적 조치로 심히 유감이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하였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감감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0년 7월 8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

교회 예배 외 모임 전면금지 규탄 청원 40만 돌파

예배 외 모든 모임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한 것을 규탄하며 취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14일 현재 4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7월 8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미래회포럼, 한국기독교교인총연합회(CCA) 등이 즉각 규탄하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

참여인원 : [408,518명]

케테고리 행정

청원시작 2020-07-08

청원마감 2020-08-07

청원인 kakao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답변완료

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세균 총리의 조치를 규탄하며 취하를 촉구하는 청원

이 게시됐고, 청원은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동의자 1만 명, 당일 자정쯤 20만명, 14일 현재 40만 명을 돌파했다.

푸르른 초장에
만발은 싱그럽다

조용묵 목사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행 26:24~29)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대하여는 거룩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언행을 살펴보고 모범을 삼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여 2년 동안 미결상태로 구류되어 있던 바울이 신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말하면서 자신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립바 왕의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라는 말에 이같이 응수하였습니다. “말이 적든지 많든지 원한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법정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사도 바울이 각각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고 허황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참되고 정신 차린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신관, 우주관, 역사관, 가치관, 생사관과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확신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우주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을 오랜 세월과 우연의 결과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죄란 실제로 하지 않으니 무시하고 있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다고 해도 고행이나 선행 행위로서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해결됨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목적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정해진 종말이 있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죽음에 관련하여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압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며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는 때가 되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가 세상의 학문을 통달하고 권력과 부귀를 누린다 해도 허황되고 정신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정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선포한 메시지는 나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신자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눈뜨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입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코로나19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창립45주년 기념예배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이하 한기지협은 창립 45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7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코리어나호텔에서 드리고 '나부터 정직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절제하자'라는 3대 실천목표가 담긴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기지협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온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교회 역시 한때 예배가 중단되는 등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계속해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교회를 보며 아픔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실 분 역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유홍목 목사(합동합신 증경총회장)의 기도, 김동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권 목사는 '지도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도자가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영적인 책임감이 결여될 때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 니알처럼 위기에 놓일수록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고 슬기롭게 헤쳐나아가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김정부 목사가 '현의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배대선 목사(세계복음화선교회 대표회장)가 '코로나 재앙이 속히 소멸되기 위해', 김해철 목사(무타대 전 총장)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국가 안전을 위해', 정일채 장로(한기지협 이사)가 '북한 정권의 붕괴와 평화통일을 위해'라는 주제로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김정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와 이정춘 목사(한국교회국가안전진흥원 총재)는 각각 격려사와 축사로 한기지협의 창립45주년을 축하했다.

제12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

(사)한국장로교총연, 6.25 한국전쟁 70주년도 기념해 개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제12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를 회원교단 총회장, 임원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였다.

금년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형집회가 아닌 회원교단 임원들 250여 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쓰고, 한금 순서도 개인이 현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하며 참석자 전원 등 록을 받아 참석하였다.

대표회장 김수을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국사회와 교회는 코로나19, 경제 불황, 인구 문제, 안보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가운데 교회가 내일에 대한 희망의 빛을 전하여야 하기에 이번 행사의 주제를 '빛이 있으라(창 1:3)'로 정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원교단 임원 위주로 참석자를 초대하였다고 하였다.

설교를 맡은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직전



총회장)는 설교에서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의 빛으로 시작이 되었고, 천국의 빛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며 "우리가 새로이 얻은 신분이 빛이고, 새로운 삶이 빛이기에 한국교회가 빛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화개하고 반성할

일이 이런 은혜의 인식과 은혜의 삶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을 점검하고 다시 빛의 역사를 이루자"고 권면하였다.

이날 비전선언식에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가 비전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육순종 목사(기장 총회장)가 "2020 우리의 회개와 다짐"을 낭독하고 회중과 함께 7개의 실천 강령을 재창하였다.

성서공회, 부르키나파소 성경기증식

성경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남양주총신교회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김영태 권사, 왕보람 대표의 후원과 남양주총신교회(안성덕 목사)의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에 <굴만세마어 성경>과 <어린이 불어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지난 6월 27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졌다.

이번 기증식에서 김영태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경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남양주총신교회 안성덕 목사는 "말씀 공동체(8:1-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겠다는 목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해 세워졌던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

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하였다.

성서공회 총무 홍재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보내지는 성경을 통해서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이 가난과 이슬람의 핍박, 심각한 문맹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영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쪽 내륙에 위치해 있는 작은 나라로 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대다수는 아프리카 방언을 사용한다. 84개에 이르는 방언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으며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의 문맹률은 58.8%에 이른다(2018년 기준). 높은 문맹률로 경제 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어렵다.

한국성결교회연합, 제11회 정기총회

신임 대표회장에 한기재 목사 취임

국내 3개 성결 교단(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사탄성결교회)의 연합 모임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이하 한성연)는 지난 7월 1일(수) 서울 동대문 중앙성결교회(담임 한기재 목사)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한기재 목사(기성 총회장)를 추대했다.

이날 총회는 기성·예성·나성 3개 교단에서 총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대표회장 문정민 목사(나성)가 의장으로 나서 개회를 선언했다. 동 연합회의 대표는 회칙에 따라 3개 교단이 순번제로 맡으며, 올해는 기성의 차례다.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한기재 목사는 "연



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결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이제는 질적으로 건강한 부흥을 필요로 한 시점이다. 우리 성결교단이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특히 성결교 정체성을 담은 목회자윤리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3개 교단 대표가 모여 한국사회 앞에 선언적 의미를 담은 목회자윤리규정을 공포하는 일에 의견을 나눴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문제들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학적으로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한국구세군, C&M אלייאנס 한국총회 등의 한성연 참여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C&M אלייאנס 한국총회는 기성의 협력교단이다.

한국장로회총연, 제40회기 1차 실행위

'6.25 전쟁 발발 70주년의 반추' 특강시간도 가져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현 장로/이하 한장총연)가 주최하는 '제1차 실행위원회 및 세미나'가 대표회장 소속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주관으로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 장로(예성, 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예배에서는 김운성 목사(예성 총회장)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고전 15:50-58)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전우수(고신, 공동회장), 전진화(기성, 공동회장) 장로가 국가안보와 코로나19, 한장



총연 소속 17개 교단 장로회 부흥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했으며, 복음가수인 안효현 장로(예성, 부평남부교회)의 한금찬양과 이강준 목사(예성 교단총무)의 축사가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 진행된 2부 안보세미나에서는 예비회 육군대장인 권오성 장로가 강사로 초빙되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의 반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맡았다.

세계선교협의회 제148차 월례회 개최

세션협 회장 양승수 목사

세계선교협의회(회장 양승수 목사, 이하 세션협) 제148차 월례회가 지난 6월 25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5-1 소재 산장카페에서 열려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기도과 전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1부 예배는 김경수 목사(로고스코회)의 인도로 전순임 목사(연합교회)의 대표기도,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시 121:7-8 말씀을 본문으로 '도움과 보호의 약속'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

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 가면 주님은 영원까지 도우시고, 지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송민자 목사(참사랑교회)의 봉헌기도, 김전자 목사(엘림중앙교회)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나라의 평안과 세계선교협의회 발전에 위해서 △회원들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봉성으로 기도하고 회장 양승수 목사(사랑의샘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양승수 목사의 사회로 감사제와 임명장 증정 후에 서기 최미영 목사, △회일정명,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송민자 목

사, 임양회계보고는 전종호 전도사,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 총무보고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했다.

안건토의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 교장 영임의 건, △마스크, 수도, 선풍기 구입의 건, △단기 선교의 건, △국내에서 단합대회의 건, △차기 월례회 장소의 건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카페에서 전종호 전도사가 식사를 제공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세션협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양승수 목사, ▲부회장 진인숙 목사, ▲서기 최미영 목사, ▲회계 송민자 목사,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 ▲임양 회계 전종호 전도사, ▲총무 전순임 목사, ▲감사 김운현 목사, 김재선 목사, ▲회교장 한규섭 목사, ▲유치원장 김전자 목사.

(주)스마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방역 도우미

장익자, 성경거치대 등에도 뒀다 붙일 수 있는 항균 필름 개발

코로나19로 한국교회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발부착이 용이하면서도 확실한 항균력을 자랑하는 '항균 필름'이 개발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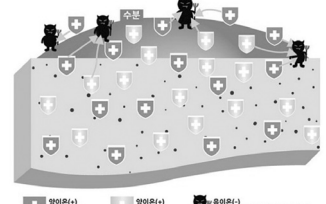
광학용, 미디어용 기능성 필름 전문회사로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스마트(사장 김정호 집사·서광교회)가 기능성 항균 필름 'Shield24' (www.ismart.sheet.com)를 선보였다.

'Shield24'는 인체에 안전한 무기물인 은·구리·이온 등의 금속을 나노미터(nm)급으로 분해해, 고농도 콜로이드실버 수용액에 함유한 뒤, 특수처리 과정을 거쳐 합성수지의 재료와 혼합시킨 제품으로, 항균력과

출력(코팅) 안정성 어느 하나 뒤떨어지지 않는다.

일상에서 다중시설 이용 시 접촉 표면에 서식, 기생하는 각종 세균류와 곰팡이류의 단백질로 구성된 외피에 항균 필름의 '4'급 속이온 성분이 세포와 결합해 바이러스의 외피를 녹이고 파괴하면서 증식을 방지 및 2차 감염을 예방, 차단하는 방식이다.

'Shield24'가 어느 항균 필름에 비해서 이목을 끄는 데에는 'Shield24'만의 기능과 장점 때문이다. 'Shield24'는 반영구적 항균 필름으로 항균, 항곰팡이, 유해 세균의 예방과 확산 방지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무기계 나노급 금속이온 천연항균제



를 이용했다.

또한 기교 걱정 없이 누구나 직접 부착이 가능한 AIR FREE 항균 필름을 사용했고, 세계 최초로 원단에 고해상도 실사 출력과 코팅 기능을 더했으며, PLAIN(스타커)와 DOT(점) 2가지 점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금지법의 진실, 인권위의 집요한 제정추진 종교탄압

사)한국기독언론협회 ‘제1회 기자 아카데미’
현재의 법으로도 차별 안 받을 권리 충분해



사)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 국장/ 이하 언론협회)가 '제1회 기자 아카데미'를 지난 7월 9일(금) 경기도 용인 새이레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약 40여 명의 기독교 언론 기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소강석 목사와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박성제 변호사(기독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를 강사로 진행하고 교계 언론의 역할과 문화 막시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이유와 인권위의 집요한 제정추진 뒤에 깔려있는 종교탄압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의 진실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금번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해 한국교회를 비롯해 국민들 모두가 우려하던 역차별로 인해 벌어질 불요, 불급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 조정하고 기독교 언론의 역할과 올바른 자제에 대해 심감 강당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강석 목사

연합기관의 분열, 하나 된 리더십 부재 아쉬움으로 남아
한국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이 되어 주기를

먼저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대변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로부터의 비난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단일함이었다”면서 “부흥의 성과를 지속하기 비배, 화해하지 못했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에 이들은 몸으로 대신 맞아 줄 리더의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었으며 무엇보다 반 기독교적 여론몰이가 한국교회를 파편지한 단계로 매도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총 등으로 나뉘어진 연합기관의 분열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며, “결국 논란의 문제로 궁극적인 대의를 놓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소 목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모인 상황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할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대표성이다”면서 “연합기관은 하나 된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의 공신력 있는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처에 있어 연합기관의 대표성 분산은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교회의 주일 예배를 두고, 국민들의 반감이 격해지는 상황에 한국교회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하나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 개교회들의 혼란은 커졌고, 이 외중에 정부 및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늘었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코로나 확산 당시 한국교회의 대처는 매우 훌륭했고, 이를 정부와 청와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중에 갑작스럽게 서로 간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악화됐다. 이를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기독교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시황중언 법으로도 충분히 차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불필요하며 한국교회들과 괴리하려는 불의한 동기로 입법추진을 하려는 만큼 한국교계언론이 한국교회와 힘을 합쳐 순교의 각오로 진실을 밝혀 한국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와 살아야 기독교 언론이 살

고 기독교 언론이 따로 서야 한국교회 역시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승규 장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 파괴를 통한 공산주의의 건설
한국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김승규 장로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당면 과제로 ‘문화 막시즘’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합법화, 간통죄 폐지에서부터 급진적 폐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의 현상들이 모두 ‘문화 막시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막시즘의 요소들은 가정, 도덕, 교회 파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문화 막시즘이 성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현재 반토막 나거나, 일부 국가는 거의 소멸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명시한 동성애를 기독교가 죄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양심을 가진 목회자들은 구속이 되고, 성도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며, 교회는 엄청난 탄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사회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는 동성애자의 성직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로는 “문화 막시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 막는 벽이다. 막시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막시즘의 이론이 만들어진 이후 전 세계에서 무려 1억명이 학살을 당했다”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이므로 성경에 가장 근접한 사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질적 목적으로는 교회 파괴를 통한 공산주의 국가 건설, 미국 개신교회 지역 확대, 소좌파시민주의체 일지라 제 공 조정금지지배력 확대 등을 의심했다.

김 장로는 “한국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이 외중에 교회 분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기독교 언론 역시 차별금지법의 진실을 국민들에 적극 알려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언론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성제 변호사

‘민약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해야

박성제 변호사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의 실체를 폭로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3일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약 80%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주요 방송 및 일간지, 유력 인터넷 언론이 전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박 변호사가 속한 기독교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는 찬성 8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급변 여론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법률제정에 대한 것만 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이었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박 변호사는 “민약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가?”라며 “해당 질문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요인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만약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문제 등의 요인들이 명시 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설문조사의 전체적 결과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남녀 차별이나 연령 차별을 꼽았으며, 장차 성 소수자라는 답변은 0.7%, 단 2명에 그쳤다. 중요한 것은 그 2명마저도 일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 점이다. 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고 대답한 이는 단 7.5% 뿐이었다.

박 변호사는 “80%의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보도된 해당 여론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들의 논거를 통째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기업, 학교, 단체 등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설마 이런 법이 통과될까 싶긴 하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 벌써 8번에 시도다”면서 “지금만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음, 그 다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적극적인 대처로 애초 발의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언론들을 통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에 사명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번 아카데미를 주관한 한국기독언론협회 문병원 회장은 “복음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계 언론이 일반 언론의 의도된 조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순교의 각오로 진실을 밝혀 교회를 살리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새롭게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국민들을 호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3조)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장애, 인종 등과 함께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성적지향’은 “이성에,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차별행위의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제41조),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44조). 또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해 손해를 끼친 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제51조).

특히 법안 제6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1항은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든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직,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지를 위반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6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새로남 교회, 진평연과 복음법률지원단에 특별후원금 5천만원 전달

2020년 7월 9일(목) 오후 3시에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특별 후원금 5천만 원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지원센터에 사용하도록 전달했다. 이날 특별후원금은 진평연집행위원장 김원평 교수(부산대학교)와 복음법률지원센터의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전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요 법칙을 깨뜨리려는 어떤 시도나 어떤 사상으로 교회는 막아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한바탕 한뜻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 후원금으로) 본 교회(새로남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한국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표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배숙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가 한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것”이라며 후원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또한 김원평 교수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먼저 새로남



교회의 기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사를 표했고, “이번 기회가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이 되는 기회가 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교회들과 교단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주시는 것 자체가 앞장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오늘 새로남교회가 후원금을 전달한 진평연은 지난 5월 27일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국 486개 단체로 시작되어 6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7월 9일 현재 498개의 단체 연합으로 계속해서 연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

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http://sign.healthysociety.or.kr/>) 7월 9일 오후 5시 현재 1831.00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복음법률지원센터는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령의 재개정 및 행정정책의 변경, 법률자문, 소송지원, 국제협력, 연구, 교육 등 그 밖의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 수요 법률 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을 조직하기 위해 세워지는 단체로, 7월 27일에 발족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9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차별금지법, 제3조 3·4호, 설교 처벌하게 돼 있어

시민단체들,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반동성에 기독교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옴을가치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9일(목) 국회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국회정문 앞에서 정의당 의원 중심으로 10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선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일방향의 기사가 쏟아졌다”며 “그 결과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소조항을 모르는 일반 국민은 언론이 쏟아내는 일방향의 보도에 길들여져, 차별금지법이 아주 좋은 법인 것인 양 오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정성 잃은 언론방송의 직무유기 탓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일반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을 교회에서 설교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은 법안 제3조 제3호와 제4호(차별의 범위)라며 “이는 반대 표현을 차별로 보는 조항으로,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 23페이지에 나오는데, 위 제3호가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므로 처벌하게 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회도 직원, 간사, 전도사 등 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제3호의 고용 영역의 괴롭힘 금지가 적용된다. 따라서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나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제3호는 고용, 재해, 교육, 행정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4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따라서 교회 설교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악의적으로 이태원 게이클럽 사건과 연결시켜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해석하여,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여론조작이다. 게이클럽은 무수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게이클럽이란 말이 사라졌다. 그리고 신원 파악이 안 된 약 2천여 명의 출입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의도적으로 감춰졌다.

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의도적으로 감춰졌다. 그로 인해 지금 또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언론방송은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역차별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다수국민 역차별, 표현자유 말살, 반민주 독재법,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의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6월 29일 국회정문 앞에서 정의당 의원 중심으로 10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선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일방향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 결과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소조항을 모르는 일반국민은 언론이 쏟아내는 일방향의 보도에 길들여져 차별금지법이 아주 좋은 법인 것인 양 오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정성 잃은 언론방송의 직무유기 탓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했고,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일상에서가 아닌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었다. 비상 상황에선 국민들 모두가 민감해 있고, 이는 집단이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사전 치환된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는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악의적으로 이태원 게이클럽 사건과 연결시켜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해석하여,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여론조작이다. 게이클럽은 무수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게이클럽이란 말이 사라졌다. 그리고 신원 파악이 안 된 약 2천여 명의 출입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의도적으로 감춰졌다.

그로 인해 지금 또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언론방송은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역차별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평행되고 외국된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가치연합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통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LGBT들이나 가짜난민을 비롯한 불법외국인체류자나 노동자들의 문제는 언제나 특별보호를 받아왔다. 언론방송은 그들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못해 안타깝게도 특정이념에 치우친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하수인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판단한다. 유엔의 자유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필수이행사항처럼 외국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에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일반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을 교회에서 설교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은 법안 제3조 제3호와 제4호(차별의 범위)이다.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이들 다시 풀이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8면 하단으로 이어짐



생명의 말씀



정기영 목사

· 부산지방회장 겸경회장
·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 61:1)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눅 4:14에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같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주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를 놓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것은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 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은 내적 자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된 본성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막 7:20 이하에서 상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롬 6:5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지 아니함이라 함입니다. 몸이 있기에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에서 벗어나 수 없게 되었고 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민지 음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는 온갖 종류의 음란물과, 밤이 되면 tv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안방에서 음란물이 방송되고 있으며,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들어내 등 온갖 음란 문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이런 음란 문화 속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탐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남편의 눈을 비늘로 찢어 소경으로 만들어 죽게 한 다음 보험금을 타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느 아가 엄마가 소독하지 않은 물을 먹여 아이가 장염에 걸리게 하여 보험금을 타고 그 아이가 죽자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장염들게 해서 보험금을 타고 그 아이가 죽게 됨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짜 잔, 가짜 참기름, 석화가 든 두부, 가짜 돼지고기를 만들어 사람이 먹으면 병이 들게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등 세상은 돈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만민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딤후 6:9 이하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잠 21:6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돈의 미혹을 받음으로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게 마지막은 멸망이라 합니다.

눅 16:13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귀히 여기

면 하나님을 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귀히 여기면 탐욕심이 그를 우습게 보지만 돈을 함부로 여기면 탐욕심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나 작으나 돈을 귀히 여기면 그 교회는 탐욕심에게 사로잡히지만 돈을 함부로 여기면 탐욕심이 그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잘 다루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복이 땅의 복을 의미하지만 물질의 포로된 자는 이처럼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성경구절을 찾아보았지만 사람들은 음란과 탐욕과 모든 죄에서 벗어나 날 수가 없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음란이나 탐욕에 포로가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되겠습니까? 요 8:31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진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십니다. 말씀에 거한다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살 것을 결심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롬 36:25 이하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

이 임하시고 상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죄의 포로에서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눅 10:19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야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 속에 술 마귀가 있으면 술의 포로에서 못 벗어나니, 성령의 능력으로 술 마귀를 쫓아내면 그 사람은 술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음란한 영이 있으면 음란의 미혹에서 벗어나 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음란의 영을 쫓아내면 그 사람은 음란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사람 속에 우울한 영이 있으면 우울함에서 벗어나 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울한 영을 쫓아내면 그 사람은 우울함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역사를 쫓게 되면 그 모든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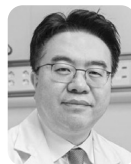
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 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동정

감염내과 교수 '교회에만 금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임종식 교수가 최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기 예배 외 다른 모임 금지'에 대해서 "교회에만 적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어떤 형태의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승환 연세대총장, 중장학생 축하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7월 8일(수)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 시상식에 초대되어 상하이명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장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승환 총장은 장학생들이 한·중 공영 문화의 융합과 청조를 통해 양국 우호와 학술 교류의 든든한 가교가 되길 당부했다.

한일장신대 새 총장에 채은하 교수



전북 한일장신대학교는 이사회를 통해 제 7대 총장에 채은하 교수(63·신학과)를 선출했다고 지난 9일(목) 밝혔다. 채은하 교수는 1998년 역사를 가진 한일장신대에서 초기 외국 여성 선교사 교장들을 제외한 첫 여성 총장으로 선출됐다. 채 교수는 "서서 평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섬김과 돌봄의 하나님의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동대, '차세대 선교 컨퍼런스'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한동대 김영길 그레이스홀 그레이스홀에서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선교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 발의되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6월 2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에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장혜영 강은미 류효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다.

이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7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 데 그 이유를

삼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많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 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

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등 500여개가 합하여 발족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권력에 이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명제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원장)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것이며, 동성애는 이데올로기 투쟁이고, 국제법이나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게 하므로,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반동성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그럼에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잎,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잎, 독활오일, 삼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윈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 등 통통이 있는 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 (운동전후운전/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잎,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 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손등에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배개 등에 한두방울을 사용합니다. 따뜻한 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손등에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배개 등에 한두방울을 풀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 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 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날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아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아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세아버터, 마키데미아넷오일

⑨ 젤뮈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 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문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 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 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강력 규탄한다!’

7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교회’의 정구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예배 사이도 찬송가와 통성기도를 지양하라고 했다. 물론 정 총리의 발표가 예배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지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힘에도 일부교회에서 방역망이 틀리는 모습을 보여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오해의 여지를 넘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현한다.

하나. 교회는 결코 코로나19의 가해지도, 감염의 전파지도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요구될 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까지 정부의 방침에 선제적인 태도를 취했다. 성도들의

개인위생은 물론이고, 교회의 방역에 있어서도 많은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전체 확진자 중 교회로 인해 감염된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왔음을 자부한다. 정 총리와 정부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 정부는 종교편향적인 태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통합과 협력이어야 한다. 국가는 종교들 사이에서도 균형을 유지시켜야 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편향적인 태도가

없도록 중재역할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결코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정 총리의 발표 후에 있었던 정은경 중대본부장의 발표(‘필요하면 성당과 사찰로 확대할 것’)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발표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사찰과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왜 묵과하는가?

셋. 교회는 계속해서 국가의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의 때마다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주도적으

로 감당해 왔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70% 이상을 책임지며 사랑실전의 최전방에서 국가의 협력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왔다. 그 덕분에 교회는 국가의 협력 파트너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회를 마치 전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곡책하는 정부의 태도는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깨고 위협하겠다는 것으로 부어 해석되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19의 고통은 다시 한번 전 국

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교회 역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할 때, 코로나19는 반드시 조기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함께 손을 붙잡을 것인지,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지, 정부의 선택을 주목하겠다!

2020년 7월 9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

■ 감리교회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 연대 성명서

감리교회 목회자가 퀴어축제에서 무엇을 축복하려는 것입니까?

어머니 같은 감리교회를 아프게 하지 말라

지난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천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인권의 사각지대, 이부망천, 전국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인천에서 지워지고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를 위하여 인천 퀴어 문화 축제를 연다.”고 밝혔 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천은 인권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 사는 곳이고, 인천은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말 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더 충격적인 것은 ‘전국 최 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인천에서 성소수자들이 지워지고 배제 당했었다’ 때문에 퀴어축제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 니까?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교회는 인천을 복음의 전조까지 삼아 지 역발전과 인재교육에 앞장섰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 니다. 인천의 곳곳에 기독교의 공헌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 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폄하하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 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지문은 동성애를 반기독교정서의 도구로 삼 아 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교세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어머니와 같은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인천퀴 어축제 조직위의 성명은 인천의 모든 교회를 향한 공격일 뿐 아니 라,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감리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해 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31일 제2회 인천퀴어축제에서 황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회를 공격하고 매도했던 퀴어축제에 감리교 회의 한 목회자가 축복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동성애 반대 에 가장 앞장서며 하나님나라를 외쳐야 하고 감리교회의 명예를 희

복해야 할 감리교회 목사가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한 것 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데, 교회와 장정에서는 동성애 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퀴어축제 참가자들은 감리교회를 모독하고 있는데.. 감리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축복하려는 것입 니까? 이동환 목사가 할 일과 과연 감리교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2018년 인천 퀴어축제 현장에서는 감리교회 성도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쳤으며, 부족한 이 사람들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감리교회의 두 명의 청년 이 퀴어 치랑에 손을 크게 다쳐서 장애티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 퀴어축제현장에도 많은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리 교회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을 거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에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회가 목회자의 허물을 안기 위하여서 내민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

둘째 만약이동환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교회와 장정의 법대로 분명하게 처리하라!

셋째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선배목사들과 후배목사들은 더 이상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고, 자중하라!

넷째 감리교회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지하라!

2020년 7월 7일

감리교회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 연대

■ 전국 감리교 원로 목사회 성명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어기는 신성모독죄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르크시즘이 열풍을 일으켰으나 구소련 과 동유럽이 망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했으나, 마 르크시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인류의 문명을 위 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글 POSTMODERNISM 시대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잘못된 3가지 혁명이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소 비에트 볼셰비키 혁명과 1968년 성혁명이다. 그런데 3가지 공 통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 노트르담 성당에 십자기를 제거하고 헬리의 여신상을 세우고 성직자들과 성도들 20만 명을 죽이고 처형했다. 그 바탕에서 칼 마르크스가 나오고 니체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고 했으며 독일애 공산당을 창당한 안토니오 그람시가 나왔다. 1917년 소비에트에서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땅에서는 자본가를 축출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라고 하면서 교인들과 부자들과 지식인들, 모두 2,700만 명을 죽였다. 1968 년 자유, 관용, 평등 이란 슬로건 하에 성 윤리, 성 개념, 가족개 념을 해체하고 성혁명을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며 절 대자인 하나님을 잠신으로 폄하하며 태동한 것이 POSTMODERNISM 이다.

젠더의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존 머니와 성혁명을 주장 한 빌헬름 라이히와 성개념 성윤리 가족개념의 해체를 주장한 루이 알튀세르와 해방신학을 주장한 알랑 바디우 같은 자들이 그람시의 제자들이요 철저한 신공산주의 자들이다. 그들의 꿈 이 있다면 오직 교회 파멸이요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합법화가 된 23개국 나라마다 모 두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동성결혼 커플에게 케익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고발당해서 135,000불의 벌금이 나왔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애 가르치는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했더니 고발당해서 아버지가 구속이 되었다. 하와이 UMC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 다가 고발당해서 목사가 출교가 되었다. 노상에서 예수를 믿 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했다가 고발당해 구속이 되었다. 이처럼 동성애 합법화 배후에는 기독교 탄압의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어 10년 만에 영국 에 13,000 곳의 교회가 문을 닫고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 문 을 닫았다. 신공산주의자들이 자유, 인권, 차별금지 등 감언이 설로 사람을 속여서 파멸로 이끌고 갈 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 팔을 붙여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전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기독교인은 삶의 척도가 성경이요 생활 지침이 성경이다.세 상 법보다는 교회법이 우선하고 교회법이나 장정보다 성경이 우선한다. (마 5:18, 히 13:8, 례 18:22, 례 20:13, 롬 1:26-27 등) (창 1:27-28)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합해서 생 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러 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신성모독 죄에 해당 한다. 남녀 간 음행도 안 되는데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를 옳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창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마 5:13)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썩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와 함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감리교회 에서 떠나기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전국 감리교 원로 목사회 일동
대표 박상혁 감독

목양時事

이효상 원장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교회세움, 건강한 교회가 로드맵(road map)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60년 동안 교회의 목표 를 ‘성장’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 왔다. 그러다보니 사회정의 실현과 민주적 생활양식 함양을 등한시하며 대형교회로 급성장했다. ‘성장’의 정점을 지난 코로나 19로 인하여 ‘성장’에서 ‘건강’으로, ‘발 전’보다 ‘회복’과 ‘세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코로나의 위기속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그런데 최근 수년간 대다수의 교회나 목회자들이거나 할 것 없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딱히 ‘건강한 교회’라 말하기도 뭐한 경우도 있 다. 비정상적이면서 정상을 말하는 것과 같 다. ‘비판’을 가지고 ‘건강’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세움’이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 게나 말이 다르다면 이는 한번쯤 개념정리 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인지 1997년 이후 세미나와 집회 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가 어떤 것 인가?’에 대한 강연을 하면,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초나 근거 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어떤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 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참모 습은 어떤 것인가? 참 교회의 표지들 (marks of the church)이란 그것이 있으면 교회이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들

을 칭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 그저 ‘교회’라고 생각 하는 오류에 빠진다. 본래 교회는 사람들끼 리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바른 신앙고 백’이다. 이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가’이다. 우리가 느끼고 좋다고 판단하는 것 중심으로 ‘건 강한 교회’를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감성 적으로 은혜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오류에 빠져선 안된다. 재 정적 투명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일 반적인 상식선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운영된다고 꼭 건강한 교회라 판단해서도 안된다. 판단의 기준이 ‘성경적인가’에 우 리가 생각하는 것을 첨부해서 다른 것을 붙이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건강한 교회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교회의 주인은 누 구인가, 교회의 존재목적은 무엇인가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 에 오신 목적이 병원이나 학원이나 고아원, 양로원을 세움이 아니라 ‘교회 세움’이었 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니”(마 16:18)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통치해나가

신다.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 다. 이처럼 성경에 근거해 성경적 복음에 충 실한 교회만이 ‘교회’이다. 개혁주의 교회라 면, 복음의 바른 선포를 교회의 표지로 삼아 야 한다.

또한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 셧기에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표지 이다. 성찬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 체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의 뜻을 수행해 가는 일을 권면하고 함께 기 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도록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 지 않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심정으로 벌을 주어서라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처리(治理)인데, 이를 교회의 표지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예배가 순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 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추구 해야 한다. ‘엔테테이너’들을 육성하여 인 간들의 취향과 감성을 자극하거나 행편을 고려하는 것이 앞서지 않아야 하고 성령님 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 가는 교회임이 더 중요하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들이 부르신 곳,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답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

들을 삶 속에서 비르게 행하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하 므로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의 은사에 따라서 가정과 학교, 직장, 일 터지역에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 님의 나라를 이루는 평신도 일터사역의 모 델들을 발굴하고 나와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들에 교회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시 대에 감응해야 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이다.

주님의 부르신 소명은 다르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분명 ‘사명’이다. 그 사명 을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감당하지 않는다 면 결코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성도가 아 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찌보면 모든 성도 는 다 거룩한 직분자다. ‘평신도’라는 말 이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 이 있다. 그것은 기능상의 차이요, 직분이 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하면, 그 자체가 ‘성직’이다.

건강한 교회는 일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공동체이다. 조 직이나 행정이나 교육 등 모든 활동이 하나 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이 가 동등하고, 모든 직분이 동등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현실로 드러내야 한다. ‘직

분’은 특권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과 성도 들을, 그리고 교회를 ‘섬김’이다. 교회 일은 ‘헌자’가 아니라 ‘함께’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함께’이다.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다음세대’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게 된 분들을 잘 양 육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적 문제에 급급하여 다음세대의 교육, 다음세 대의 교회가 현재보다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등한히 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려 기독교 문화를 흘러보 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회세움’의 기초는 다른 말로 ‘교회 의 건강성’이다.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생존성’이자 ‘건강성’이다. 한국교회 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핵심역량 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기 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회생태계이다.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은 이런 고민을 가 지고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매년 건 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선정하 고 목회자를 발굴하여 소개하려 한다. 이는 ‘교회세움’에는 ‘교회다움’과 ‘목회자다 움’ ‘성도다움’이 전제된 건강한 교회가 필 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어찌 보면 코로 나19 사태 이후, 신앙 행태가 알곡과 가리지

로 나누어졌다. 136년 만의 예배를 중단하 는 참담함을 보며 너무나 서글퍼서 통곡했 다. 아침왕 때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남은 종들이 있었다. 이 시대도 그런 시대 아닌 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야 한 다. 세상권력이나 여론에 아첨하지 아니하 고 교회 본연의 신앙과 예배모습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사실 절진 생명력을 지닌 건강 한 교회상(像)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 타니아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을까? 예수 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실현하고 있는가 여 부이다. 즉 끼쳐지는 기도의 불을 다시 피우 는 기도사역, 성경의 말씀을 용기있게 선포 하는 설교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사역, 병든 세상과 이 땅을 치유하는 사역을 전제 로 한다. 더 나아가 공교회성을 지닌 목회사 역의 아름다운 계승과 교회의 공적 사회적 책임, 기독교 문화로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교회의 모습 등을 주목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위기속에서 이단과 사이비 들의 사교화로 인한 피해를 보며 이런 한국 교회의 공교회성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 어 진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문제점 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 땅 교회에는 문 제점이 너무 많다. 각자의 이권과 자리앞에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시험들 기 딱 좋다. 코로나 위기가운데 생존하기 위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의 연결, 연합에 한국 교회는 하나 되는 네트워크를 도모해야 한 다. 항상 문제가 있기에 그것을 겸손히 인정 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지극경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시대 건강한 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일은 묵묵히 교회가 교회됨에 바로 서 그런 빛을 이 세상에 비추 며, 하나되는 일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1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0. 8. 28(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0. 9. 03(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0. 9. 24(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0. 8. 28(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1. 2. 1(월)~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 고 문
- 자 문 위 원
- 대 표 회 장
- 본 부 장
- 상 임 회 장
- 공 동 회 장
- 지 도 위 원
- 부 회 장
- 사 무 총 장
- 협 동 총 무
- 후원회 회장
- 후 원 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 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 총장** 안흥규 목사 **총 무** 정진학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오세완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정수희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곽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한상문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환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 원 계 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집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볼 때(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6.25전쟁 이해

박성기 // 육군 대령 전역, 32년 군복무, 천안보석교회 섬김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안보현실 심각성 ②

한강 조기 폭파로 인해 강북에 고립된 6개 사단병력 44,000명이 전사하였고 2,0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많은 장병이 실종되었다. 부대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와해되어 모두 개별적으로 한강을 도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전투장비와 물자는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피난을 하던 서울시민 약 500~1,000명은 폭파한 다리 밑의 한강에 떨어져 죽었고 끊어진 다리 위에서 인민군을 피해 밀려오는 수많은 피난민은 앞의 상황도 모르고 한강에 떨어져 죽거나 인민군에 살상 당하고 일부는 포로로 복송되는 참상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다. 전쟁사에 자기 부대의 퇴로를 차단시켜 적에게 죽게 만드는 상관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후 지휘체계는 와해된 상태에서 장병들은 배신감과 인민군의 공포에 몸서리치며 각자 살길을 찾아야 했다. 이후 국민들의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니까 한강 조기 폭파의 책임을 물어 공병감(최창식 대령)을 사형시켰으나 부인의 소청으로 14년 지난 후에 법원에서 상관의 병형에 복종한 죄밖에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② 6.25 전 우리 사회는 남로당의 조직적인 선동으로 좌우 갈등이 많았고 군내에도 상당한 남로당 당원이 암암리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군내 남로당 당원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을 쓴 박윤식 저자는 육군 총병력의 약 10% 수준인 10,317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지휘관으로 보안법이 제정(48년) 되자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군부이탈을 하였다. 만약 이들이 6.25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지휘관으로 남아 있었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인민군에 패 했을 것이다. 한 예로 국방경비대 초대 사령관(송호성 중장)은 인민군이 서울 입성하자 인민군의 여단장 계급을 달고 “총부리를 돌려 인민의 원수 미제와 매국노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고 부르짖었다. 또한 병영 내 하극상이 빈번하였고 심지어 2개 대대가 전체 월북하는 일까지 생겼다.

넷째는 식민지 이후 국민들의 억압된 욕구 분출과 여과 없이 받아들인 미국 사회의 사치와 향락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부정신이 결여된 결과였다.

6.25전쟁 전의 남한 사회는 북한 위장평화 공세에 군 수뇌부와 국민은 남침을 없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호시탐탐 남침을 준비하는 인민군과는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도발을 허용한다고 할 정도였다. 체병덕 참모총장은 수많은 결정적 남침 징후를 보고받았지만 내일 기습남침이 있을 것을 모르고 6.24일 저녁에 수도권 내에 있는 사단장, 육군 주요참모, 미 고문단 요원과 육군 장교 구락부 개관실에 참석하여 댄스파티를 즐기고 2차까지 이동하며 술을 먹었다. 06시에 당직사령에게 남침보고를 받고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장관비서실장은 “장관님은 일요일에는 누구 하고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직접 찾아 가서 보고를 해야만 했다.

또한 참모들 일부는 전날 2차 ~ 3차 음주 후에 의부에서 숙박을 하거나 휴가나 외출을 하여 전쟁초기 긴박한 상황에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인민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는 커져만 갔다. 또한 사회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위기로 비리와 부정부패가 넘치고 미국의 향락문화와 사치풍조가 여과 없이 들어와 전쟁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인 없는 것처럼 온 도시가 받아들여 불아성을 이루었다. 예로서 전방에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데도 후방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음주기무로 빈둥거리는 젊은이들이 넘쳤으며 인민군이 3일 만에 미아리까지 진격했는데도 서울에서는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고 후방 도시 극장가에는 인파로 가득하였다. 국민들은 평화의 허상에 빠져 도무지 정신이 마비되어 있어 국가 지도자의 국방위지도 상실된 가운데 국민들의 상무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3. 안보현실과 우리의 각오와 자세

오늘날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의 안보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많은 부분이 6.25 발발 전의 상황과 닮아 있어 심히 염려되는 국면이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통일의 대상인과 동시에 유사시 싸워야 할 경제의 대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과의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정파적 이해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는 민족의 많은 상처를 남긴 끝까지 않은 종전 상태이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념적인 전쟁 현행으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의한 다양한 도발에 경계심을 갖고 단호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노동당규약 전문에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문구가 그대로 살아있으며 6.25전쟁 후 벌오리에서 남한을 완전히 석권하지 못한 최대의 원인을 유엔군이 조기에 투입된 것에 있다고 분석하고 다음 전쟁시에는 남한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미군의 투입을 못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미군투입 억제용 핵무기를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김일성시대 경제적 어려움 여건 속에 굶어가며 학제법에 몰두하여 지금은 30~40기를 보유한 것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평가하고 있어 우리는 핵의 인질이 되어 생존위협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개발한 핵 전력화의 마지막 단계인 무발수단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17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하였으며 특히 남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대구경방사포와 이스칸다르 등 4종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였다.

또한 무인도였던 함박도에 병력과 포병부대를 몰래 배치하고 서해지역(영리도, 갈도, 아리도)에 포병부대를 증강하는 등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군사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북과 추진하여 군사분계선 20~40km 항공정찰을 제한함으로 북의 군사 활동 탐지가 제한되었다. 그 외에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화살머리고지일대 철조망 철거와 철원지역 GP를 철수 후 폭파시켰다. 또한 한강하구 철책을 철거와 한강하구 수로를 남·북 공동으로 탐사한 지형정보를 북에 넘겨주었다. 물론 북에게도 GP 철수와 포문 폐쇄 등의 조치로 무력충돌의 위협을 줄인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

에서 취해야 할 사항인데 북과 어떤 가시적 성과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6.25의 아픔이 되살아나게 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과 전력증가의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이 수시로 동해와 서해로 침투하는데 경계에 실패하고 부대 병영 내에서는 병사들 휴대폰사용으로 성 착취 동영상 올리고 주식을 하는 병사가 있는가하면 상관을 폭행하는 하극상 등의 군기사고와 민간인에 의해 군부대 울타리가 침투당하는 경계실패 사례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내용만 다를 뿐이지 70년 전과 유사하다.

무엇보다 최근 국민 혈세 180억이 투입된 남부연락사무소를 642일 만에 폭파하고 김여정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 말 폭탄을 쏟아 낼 때 미 상하원의원들에 의해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침묵하고 있으며 집권당의 현역의원은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의원은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며 범안발의를 주장하고,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대전의 국립묘지에 못 가게 해야한다고 하는 의원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일부 진보세력과 지식인은 6.25 전쟁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킨 해방전쟁,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6.25전쟁 시에 목숨을 걸고 싸우다 전사한 수십만의 호국영령들은 반 통일세력이 되는 것이 되고 또한 이름도 모르는 작은 나라에 와서 전사한 17세의 토머스 병사와 희생된 약 15만 명의 참전 유엔군 장병은 민족 해방을 방해한 세력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북한이 남침해오면 싸우지 말고 항복하면 통일세력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미워할지는 사랑하고 사랑할 자는 미워하는 공의가 상실된 사회는 6.25의 참혹한 여사가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앞으로의 전쟁은 70년 전의 6.25전쟁과는 다르다. 전·평시 구분이 없고 싸우는 전선이 파악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전쟁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상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국병의지 갖고 굴종적인 평화를 구걸하는 저자세에서 벗어나 싸움 의지가 살아 있을 때 평화는 지켜진다는 상무정신을 가져야 한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타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을 남겼다. 모든 국민은 통일의 그날까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이 격언 명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야드 베네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시실 동관에 “평각은 포로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발이다”라는 문구가 있고 기념관 출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용서는 팔라”라고 새겨져 있다.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비참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유대민족의 참회와 깨달음과 미래에 대한 각오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

역력 : 예 육군 대령 32년 군복무

前 서경대학교 교수 역임

現 천안대학에서 강의

천안시 공직자 윤리위원

천안 보석교회 섬김

신간안내

쓰담쓰담 요한복음



게했다. 《쓰담쓰담 로마서》, 《쓰담쓰담 잠언》도 출간 예정이다.==말씀이신 주님을 손으로 새기고 마음에 담고 온전히 받아기는 시간 쓰고 담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저자 : 햇살공 (김나민×김연선)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06-29 | (172*230)mm 208p | 판매가 : 11,000원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세트 (전4권)

개신교의 근본 교리를 정지하게 제시한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기에 신학자이자 교육자, 저술가이자 교회 정치가로 심대한 영향을 끼친 존 칼빈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 후 1536년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개혁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라틴어 초판은 1538년에 출간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정 증보를 거쳐 1559년에 총 4권 80장으로 구성된 최종 결정판이 나왔다. 성경의 가르침을 담은 주제들을 교훈적, 교백적, 변증적으로 서술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단지 개혁신학의 초석을 다지고 토대를 놓았다는 의의를 지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개혁신학의 효시가 된다. 성경적 교의 신학의 전형(典型)을 보여 준다.

저자/역자 : 존 칼빈/문병호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발행일 : 2020-06-25 | (150*225)mm 양장 | 판매가 : 160,000원

빈 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세리장 삭개오, 목자를 잃은 나인 성 과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내용들이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방인이나 소외 계층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게다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치료에 관한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다.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을 고쳐 주신 일, 수종병(水腫病)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 주신 일, 한센병 환자 열 명을 고쳐 주신 일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비롯하여 세리, 병자, 죄인,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자 : 정한조 | 출판사 : 흥성사 | 발행일 : 2020-05-22 | (152*224)mm 364p | 판매가 : 16,000원

은혜가 걸어오다



“이 책은 설교집도 아닌데 은혜가 있고, 성경 공부 교재도 아닌데 공부가 되고, 논문도 아닌데 깊은 지식을 담고 있다. 책한 권에 이런 함축적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음에 놀람기만 하다.” 김미선 미주대표 이재환 선교사의 평이다. 이 평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저자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젖을 짜서 아이를 먹이듯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이 책을 집필했다. 박신일 목사는 목회자가 존경하는 탁월한 설교가요, 목회자다. 그의 설교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든 한제의 내 삶과 연결시켜 현재, 지금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는 힘이 있다. 이 책은 특별히 육신 많은 우리의 자화상인 아픔을 들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한다.

저자 : 박신일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 발행일 : 2020-06-24 | (142*210)mm 248p | 판매가 : 14,000원

3면에서 계속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성하는 광고 행위

이는 반대 표현을 차별로 보는 조항으로,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 22페이지에 나오는데, 위 제3호가 과포함하고 이것은 혐오표현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도 직원, 간사, 전도사 등 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제3호의 고용 영역의 과포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나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다.

더욱이, 위 제3호는 고용, 재화, 교육, 행정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4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따라서 교회 설교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친동성애 진영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목회자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감옥에 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기업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설교할 수 있기에 실제와 다르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라, 그대도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이행하려는 불길한 조짐이 드러나고 있으며, 반대세력 및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되고 1950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제30조를 보면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한방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사회는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소수집단우대정책인 아퍼머티브 액

션(affirmative action)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며 문화사대주의에 의한 것이다. 특정한 소수는 무한대로 보호하고 일반다수국민은 역차별을 당연시하는 법이 좋은 법으로 포장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개념에 의한 것으로 용인돼선 안 된다.

우리는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반인권적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과 ‘어떤 반대파의견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건 천양지차다. 그런데 동성애자/LGBT 진영에선 소수자의 인권을 앞세워 차별하지 말라면서 서슴없이 다수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무서운 독재법 제정을 주장한다.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걸 당연시한다. 민주사회에서 소수에 의한 다수차별을 당연시한다. 이는 앞서 인용한 세계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누구나 자신의 성적만족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과거 미국과 서유럽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엄청난 인권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엮살을 떠는가. 그리고 반대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무서운 발톱을 세우는가. 이는 독재적이며 전체주

의적 발상이기에도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차별금지법의 발의로 큰 충격을 받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객관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세력의 악한 음모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물론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칫 정권자원의 부당을 떠안을 수 있기에 더 이상 정의당의 칼춤에 놀아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짜인권운동가라면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인권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차별금지법이 선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언론방송이 이에 편승해 일방향의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과 조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성조를 위해서 결사항쟁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에 굴복하기는커녕, 목숨 내놓고 싸울 각오로 결연히 맞서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의당 6명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 국민적 분노 촉발시키지 말고 다수국민 탄압하려는 전체주의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는 아편적 폭거를 지행한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옹혜인 10명의 의원은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아픔을 부리지 않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방송은 과거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자랑스러운 유산을 회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정하게 심층 보도하라!

하나,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옹혜인 10명의 의원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고 탄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비뚤함이 광대히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의당은 동성애자/LGBT들,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비호자가 돼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하지 말고, 일반 다수국민의 반대 의견 존중하라!

하나, 정의당은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는 반민주적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정의당은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아리송한 주

장임을 각성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10명의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제 그만 유엔의 하수인노릇 멈추고, 다수국민 역차별하는 맹목적 소수자 특권 부여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7월 9일

반동성애가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게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교육바보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세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시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민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어상가족정책원, 차세대바보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충주미래연합, 다문화바보세우기연합(60개단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외 시민단체

기아대책, 무연고아동 지원 모금

“마음의 상처 치유, 내일이 외롭지 않도록”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이 무연고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 캠페인 ‘있다’를 진행한다. 지난 7월 9일 밝혔다.

올해부터 무연고아동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기아대책은 ‘마음을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뜻을 담아 캠페인 명을 ‘있다’로 정하고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무연고아동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생후 10일도 안된 채 아동양육시설에 보내지고 있다. 밀착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불구하고 보호시설 교사 한 명이 평균 7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턱없이 적은 정부 지원금으로는 아동 물품 구매와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아대책은 이런 보호시설의 열악한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아동들의 건강한 심리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무연고아동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생계비와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에 지원될 예정이며 아동의 심리발달 검사 등 정서적 지원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을 받을 보호시설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및 아동자립지원단과 연계해 선정할 예정이다.

후원금 모금은 기아대책 공식 홈페이지(www.kfhi.or.kr)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은 연중으로 진행되며 1차로



모금된 후원금은 서울 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11명의 무연고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후 모금되는 후원금 또한 유사 상황에 놓인 무연고아동을 추가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강창훈 국내사업본부장은 “국내 무연고아동의 보호 환경과 심리정서적 보호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가장 가깝게 보호 받아야 할 나이의 무연고아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부모의 품과 같은 도우미의 손길을 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대책은 ‘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국내아동정기후원에 참여한 후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숲속 사진관에서 온 편지’ 도서를 증정하는 마음을 있는 도서지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석문화대, 넥스트유-산학협력 체결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7월 10일(금) 오전 11시 교내 자유관 회의실에서 ㈜넥스트유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이광원 학사부총장, 이찬기 교무처장, 최선기 산학협력단장 등과 강신조(㈜넥스트유 회장, 이병하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으로 △문화예술 관련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양성 협력 △대학 브랜드 후원 및 재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협력 △영상음악 전문화 과정 운영 △중국어 등 해외 현지 협업 및 해외 대학교와의 제휴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송기신 총장은 “넥스트유와 협약하게 되어 기쁘고, 우리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로 기독교문화를 접목한 콘텐츠를 만들어 중국 등 여러 나라에 한류를 이끄는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넥스트유 강신조 회장은 “백석문화대학교와 넥스트유가 성실히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며, 문화예술 관련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 상호 협력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서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기독교발전의 한 축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라며 말했다.

한편, ㈜넥스트유는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한류를 통한 문화,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 하여 ‘전도’는 ‘강도’만난 이웃을 향한 이웃사랑의 결정체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전도’에 대한 외침은 있었지만 정작

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늘 지식적이었기에 필자와 전도의 간격은 늘 거리감이 있기도 하였다.

하여 전도의 부담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족세트 전도학교 12주’가 가장(읍)비전교회에서 개교되었다.

특히 전도현장에서의 ‘능력 전도’는 최선식 전도의 강력한 병기임을 보여 주었다. 전도출발 한 시간 만에 12명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가! 영접(요 1:12)기도가 능력이 다. 가족세트전도는 코로나 시대에도 멈출 수가 없다.

웬 세상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달려가서 악수하며, 안수하고 요 1:12 말씀을 외치기도 하며, 어떤 때는 목욕탕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화번호를 비롯한 신상을 다 받기도 하며, 미용실에서 머리를 맡고 있는 미용사와 고객을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도 하며, 식당에 들어가서는 사장님과 손님에게 예수님 영접을 시키며,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속의 행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전전 후 전도로서, 상대의 신상을 1분 안에 다 받아내는 등 ‘능력전도’의 현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감동, 감탄 및 때와 장소를 초월하는 ‘능력전도’ 그 자체였다.

가장(읍)비전교회 정해석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코로나 위기 속 은혜와 감동의 찬양대회 연다

CTS기독교TV 창사 25주년 기념 ‘2020 찬송가 경연대회’ 개최

CTS기독교TV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문화선교 활성화를 위해 찬송가 경연 프로그램 ‘2020 찬송가 경연대회’를 기획·제작한다.

코로나19 위기와 사회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교계에 희망을 나누고, 찬송가를 통해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 찬송가 경연대회’는 건전한 신앙관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곡은 새찬송가에 수록된 곡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일에는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이 찬송가 경연대회를 위해 후원하기로 하고, CTS본사 컨벤션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와 성가대에서 전통적으로 불려온 은혜로운 찬송가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복음성가와 CCM이 대신하고 있다”며 “무거운 음악으



로 치부되어 버린 찬송가가 더 많이 교회에서 불려지고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2020 찬송가 경연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한국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사는 협약서 서명과 교환식을 갖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연대회 총상금 규모는 2000만원이며 1차에서 4차에 걸친 예선을 통해 최종 결선에 오른 10팀에게는 CTS 방송과 행사의 출연을 지원 받으며 찬양 문화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접수방법은 CTS 홈페이지(www.ctstv)와 모바일 앱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hymn@ctstv) 접수도 가능하다. 최종 결선은 10월10일에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웅장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선교의 사명 감당 다짐, 양평 쉼빌호텔에서

제3차 C&MA Kore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성료

C&MA KOREA 연례총회가 지난 6월 26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평 쉼빌호텔에서 개최되어 임원진을 개설했다는 한편 사명감을 재확인하고 더욱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히즈미션이 펼치는 오프닝 히즈쇼를 시작으로 총회 개회예배, 아침 경건회, 폐회예배에 걸친 세 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해 선교의 사명가로서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C&MA USA 총재인 존 스톨보 총재와 AWF 총재

주라 야나기하리의 축하 영상 촬영사에 이어 조용중 목사(KWMA사무총장)의 격려사, 김석년 목사(메스 브레이킹 기도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특별 공연에는 C&MA 한국총회 소속 HABI 교육선교회의 찬양과 도은혜양의 일렉 바이올린 연주 순으로 이어졌다.

C&MA KOREA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정해준 최준식 대표(주갈릴리)의 주제발표와 이윤기 박사(상당학)의 특강 세미나, 둘째 날 오후에는 김진 대표(GB상임대표)의 주제발표와 라체광 박사(VOCA대

표)의 특강세미나로 이어졌다.

이번 ‘연례총회’는 둘째날 열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

회장에는, 문형준 목사가 임명되었으며 부총회장 심종훈 목사, 서기 유병현 목사, 회계 박종익 목사, 인사위원장 심종훈 목사, 고시위원장 이한규 목사, 규칙위원장 김길 목사, 여성위원장 장미경 목사, 교육위원장 박경민 목사, 개척위원장 장재순 목사, 선교위원장 김수태 목사, 홍보위원장 최규영 목사가 임명됐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500ml 20개들이 20,000원

500ml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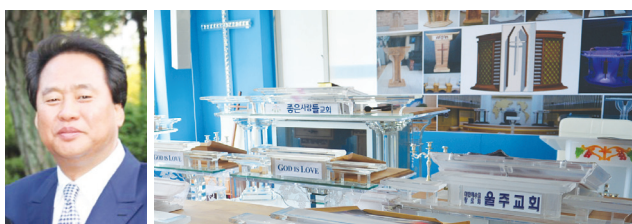
강대상의 실용성 집중 연구 개발

미끄럼방지, 좌우슬라이딩, 눈높이 맞춤
 하늘성구사 이전 오픈...성구, 음향 환경개선에 앞장

하늘성구사 대표 송태권 목사(사진)는 성구 및 음향 판매 전시장을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391-23으로 이전하고 성구 및 강대상 등 교회가구 제작을 전문으로 성구나 음향 등 필요한 것을 직접 확인 체험해 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윈 스톤 매장을 마련하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하늘성구사는 맞춤 성구로 최신식 기계설비를 완비하여 교회에서 원하는 성구 디자인이나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성구를 주문 제작하기도 한다. 특히 대표 송태권 목사는 오랫동안 목회활동을 해오면서 설교자의 강단활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끊임없는 개선과정을 통해 새로운 명작성구를 선보였다.

품격있는 디자인, 설교자의 편의를 고려한 강대상의 실용성, 미끄럼 방지기능, 고급원목재질, 설교자의 눈높이 맞춤, 좌우슬라이딩 기능, 투명아크릴 재질, 새로운 설교대는 아크릴과 원목 두 가지 재질



로 제작했다.

송 목사는 많은 말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연구해서 적체적소에 꼭 필요한 성구를 제작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목회를 돕고자 한다.

또 하나 목회현장에서 중요한 음향부분에도 전문음향 시역지를 영입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은혜 받아야 할 예배가 음향으로 인해 방해되지 않는지, 음향이 불만족스러워 고가의 음향기기로 바꾸려 하지는 않는지, 음향기기 및 설치환경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설계와 조정으로 새로운 소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음향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명감으로 나서고자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음향기기를 최적화하여 풍성한 음향으로 은혜 받는 말씀과 찬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목사는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튼튼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엄선된 자재만을 사용하여 내구성과 실용성, 미려한 디자인 추구에 최선을 다하는 하늘성구사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www.하늘성구사.com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391-23

*문의 : 성구 010-9413-3945

음향 010-9212-7982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가 보여요

한 눈을 감으면 세상이 반으로 보일까?
아니, 한 눈이 감기면 세상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세상에서 너무 바빠 눈을 뜨고 있는지 감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을 감고서야 눈이 있음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두 눈에 비할 수가 있으나
너무 커서 보지 못했고, 너무 가까워서 느끼지 못했고
한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 이 못남을 용서하옵소서.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지고
변함없이 내일의 아침이 밝아 오지만
이렇듯 감사 없이 지나온 하루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음이라
하나님은 밤새 내 눈을 고치시느라 갓은 애를 쓰셨습
니다.

인간은 복잡 미묘한 감정과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 속에
육신이 죽는 그 날까지 너무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 수고는 헛되고 헛됨이 뼈에 저민다.

뒤돌아보면 지난 모든 것이 어제 일반 같은데,
그렇게 애를 쓰며 달려온 긴 세월에 열매는 무엇인가?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열매가 있으니 하나님을 알았음
이라
하나님을 뵈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이라.

육신에 의지한 삶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어도
육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았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인간의 받을 복의 전부는 하나님 한 분이여라.

 감사의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21학년도부터 학부제 도입

복수트랙·교양인증제·사제동행 등 특별프로그램으로 장점 극대화 전략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 설립되어 세계 복음화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정
홍호 박사)가 2021학년도부터 학부제를 본격 도입
한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신학과, 선교문화복지
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
국어학과 등 학과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왔던 틀
을 벗어나 학부제를 도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대비해 사명을 키워내는 교육에 더욱 집중한
다는 방침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를 고민하기보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
가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공부에만 매몰
되어 지나가는 탓에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이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입
시를 지나 취업의 문을 향해 달려가도록 몰아간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고등학생 시절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던 신입생들이 대학 입
학 후 여유를 갖고 전공을 탐색하여 결정할 수 있도
록 학부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
육이념을 지키면서 세분화된 전공지식을 넘어 통
합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시
대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적합한 교육제도라고 여
겨진다”며 “교육 특성화를 통해 학부제와 특별프로
그램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1년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입학하
는 신입생들은 진로에 따라 글로벌미션신학부와
글로벌융합리더학부로 배속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인문학적 교
양을 배우게 된다.

글로벌미션신학부에서는 가장 전통있는 학문

중 하나인 신학과와 신학을 공부하고, 글로벌융합
리더학부는 기독교교육과 미디어, 사회복지, 영어,
중국어, 청소년 상담지도 등 공부하며 올바른 인성
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기독교 리더로 자리나게
된다.

학생들은 복수트랙으로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양인증제 아래 역량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기독교 전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동행하며 다양한 비교과 활동
을 통해 삶과 생각을 나누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운
영된다.

학교측은 “교육 특성화를 통해 학부제와 특별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면서 “시
대가 요청하는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융합적 교
육을 함으로써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인정받는 복
음전도자로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사설

국가안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잠재적 위
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 골든 스탠더드”라면서 하반기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를
발미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또 “최근 폐쇄된 사격 훈련장, 민간
시위로 인한 불충분한 훈련장 사용 등으로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 개성 연
락사무소 폭파 등을 볼 때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여당의 한 의원은 1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
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라
는 발언을 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첨단 무기로 무
장한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한
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56%나 된다.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한국의 59만 9000여 명의 2배가
넘는다. 전차는 한국 2300여 대, 북한 4300여 대, 전투함
정은 한국 100여 척, 북한 430여 척, 전투기는 한국 410
여 대, 북한 810여 대다. 북한의 주요 무기 수량은 한국

의 2~4배 수준이다. 재래식 전력은 ‘첨단 대 구형’으로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6개국민이 상용 무기화한 SLBM(잠
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전력은 무시무
시하다. 북한의 신행 잠수함은 핵미사일 3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도 북한의 비
대칭 전력 강화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하 대북제재위원회 전
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 대규모 잠수
함 훈련센터와 연쇄 시설을 건설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
일 월터 사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올해 안에 북한이
3000급 신행 잠수함을 진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전차전, 사이버전, 무인기, 특수전부대, 미사일, 장
사정포, 핵과 생화학전 등 비대칭 전력을 날로 강화해나
고 있다. 간혹해서는 안 될 것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서는 국가안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것이
다.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막아서 강한 것들을 부르게 하려 하
시는 교전 1:27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교회를 록 집어 규제하는가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10일
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 활동을 규제한
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집합(예배)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對面) 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가와 통성기도 자제, 음식 제공 및 식사 금지, 출
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이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기존에 잘 지키던 준수 사항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 가운데 특이한 것
은,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신앙 활동을 중단
하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집회 금지로 다스린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7
월 8일 현재,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약 550여 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단(신천지/만민교회)의
5,254명(39.36%), 물류센터/물센터/방분관매/클럽/운동
시설 등에서 확진된 924명(7.0%), 그리고 병원/요양병
원에서의 843명(6.4%)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를 한국교
회 교인 전체 967만 명(정부의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
과)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0.0057%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6만 여 개의 교회 가운데 30여 개 교회로 0.053%에
해당된다. 그것도 6개월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이 지
속되면서 발생한 숫자이며 비율이다.

7월 9일 11시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
이 256,273명에 달한다. 이는 청원 게시 하루 만의 일로,
기록적인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이 정
부가 방역을 발미로 종교를 탄압한다는, 특히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몰상식적인 행
정명령을 철회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취위원장 조응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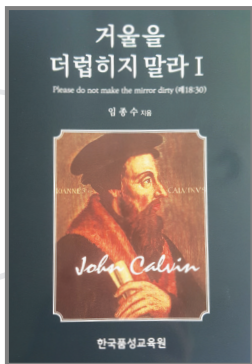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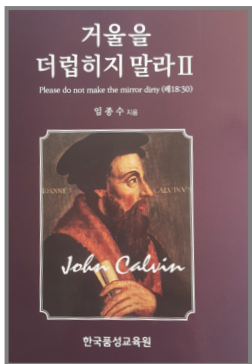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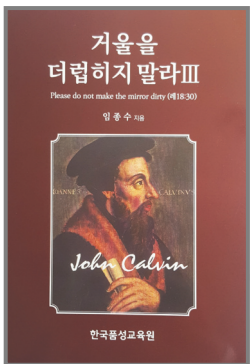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
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
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
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
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자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